

□ 사례명 :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구분	주요 내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창녕박물관)</li> <li>○ 추진기간 : 2014년 ~ 2017년</li> <li>○ 사업비 : 5,200백만원</li> <li>○ 사업내용 :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li> </ul>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 10. 16. : 창녕박물관 증축 계획수립 보고(군수, 30,000백만원)</li> <li>○ '09. 03. 04. : 창녕박물관 증축 보완 계획수립 보고(군수, 29,700백만원)</li> <li>○ '10. 04. 01. :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 완료(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li> <li>○ '10. 05. 03.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경남도)</li> <li>○ '12. 01. 27. : 창녕박물관 증축 및 인력확보계획 보고(군수, 9,600백만원)</li> <li>○ '12. 08. 27.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문화체육관광부) → 창녕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조건부 승인</li> <li>○ '13. 06. 01. : 창녕박물관 종합계획용역 완료</li> <li>○ '14. 09. 10. : 2015년~2019년(5개년) 증기지방재정계획 반영</li> <li>○ '15. 03. 03. : 2015년 제1차 투자심사 재심사 완료(경남도)</li> <li>○ '15. 03. 30. : 사업규모 변경 세부계획 보고(군수, 5,200백만원)</li> <li>○ '15. 06. 02. : 사업계획 변경 승인(문화체육관광부)</li> <li>○ '15. 09. 04. : 실시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 공고</li> </ul>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우선 선정을 위한 부지확보 및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후 사업신청</li> <li>○ 60% 비율 부담의 지방비 확보 애로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 결정 (9,600백만원 → 5,200백만원)</li> </ul>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중심에서 리모델링 중심의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세출예산 절감에 기여</li> <li>○ 리모델링을 통한 현 박물관의 구조적인 문제점 우선 반영</li> <li>○ 공립박물관의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li> </ul>											
⑤ 성과	○ 총 4,400백만원 사업예산 절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변경 전</th> <th>변경 후</th> <th>증 감</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량</td> <td>· 박물관 증축(1,200㎡) · 리모델링(576㎡)</td> <td>· 증축 665㎡ · 리모델링 1,194㎡</td> <td>△ 535㎡ 618㎡</td> </tr> <tr> <td>사업비</td> <td>9,600백만원 (지특 3,840 군비 5,760)</td> <td>5,200백만원 (지특 2,080 군비 3,120)</td> <td>△ 4,400백만원 (지특 1,760 군비 2,640)</td> </tr> </tbody> </table>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사업량	· 박물관 증축(1,200㎡) · 리모델링(576㎡)	· 증축 665㎡ · 리모델링 1,194㎡	△ 535㎡ 618㎡	사업비	9,600백만원 (지특 3,840 군비 5,760)	5,200백만원 (지특 2,080 군비 3,12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사업량	· 박물관 증축(1,200㎡) · 리모델링(576㎡)	· 증축 665㎡ · 리모델링 1,194㎡	△ 535㎡ 618㎡									
사업비	9,600백만원 (지특 3,840 군비 5,760)	5,200백만원 (지특 2,080 군비 3,120)	△ 4,400백만원 (지특 1,760 군비 2,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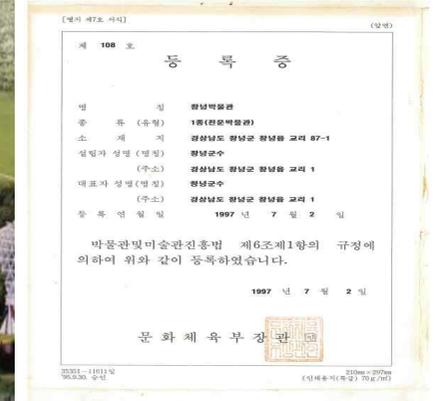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1) 예산절감 과제 선정 내용

- 개관 20년 가까운 창녕박물관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점  
경상남도 창녕박물관은 1996. 3. 2. 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하여 1997. 7. 2.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 등 열악한 재정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개관 20여 년이 경과한 창녕박물관은 최근에 건립된 타 지역의 공립 박물관과 비교해 볼 때 기획전시실 및 어린이전시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층에 위치한 수장고로 인하여 유물의 이동 시 파손 위험 등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창녕 박물관, 1996. 3. 2. 개관》



《창녕박물관 등록증, 1997. 7. 2.》

○ “국립창녕박물관 유치”에서 창녕박물관 증축 사업이 있기까지

창녕군은 국보·보물 등 140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지역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6. 12월 창녕문화원1)에서 중심이 되어 “국립창녕박물관 유치”2)를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있었으나, 현 박물관의 시설과 인력 면에서 불가능하고, 국립박물관 유치는 관련법에 따른 정책적인 사항으로 기존 박물관 시설 확충이 적절하다는 중앙부처 의견으로 창녕군은 박물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08년 사업 구상 초기단계에는 30,000백만원 규모로 계획하였다가, 2009년 다시 29,700백만원으로 수정·보완하여 일부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지방비 부담이 많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2013년도에 최종 9,60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창녕박물관 증축 사업이 확정되었다.

○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이대로는 힘들어

창녕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비 일부인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방비 60%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하는 상황 발생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2014년도에 국비 예산 500백만원이 확정되었으나, 국비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일부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최종 확정된 사업비 9,600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3,840백만원, 군비 5,760백만원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년 증가하는 주민복지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충당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제한된 재원을 적시·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유도하고 있고, 집행 지연 또는 실 집행을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된 사업을 지방비 미확보라는 이유로

그냥 두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수차례 수정과 보안을 통해 2015. 3. 30. 리모델링 중심 5,200백만원 규모의 내부방침 결정으로 군비 부담을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도 찾았고, 전체적인 세출예산 절감이라는 결과를 동시에 얻어낸 것이다. 사업의 개요와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명	창녕박물관 증축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위 치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46-1 일원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	
사 업 기 간	2014. 1월. ~ 2017. 12.		좌 동	
건 축 규 모	부지면적: 20,000㎡ 연 면 적: 1,200㎡ 리모델링: 576㎡		부지면적: 4,881㎡ 연 면 적: 665㎡ 리모델링: 1,194㎡	
성 격	역사 박물관		좌 동	
주 요 시 설	증축	1,200㎡	증축	665㎡
	리모델링	576㎡	리모델링	1,194㎡
사 업 비	총사업비 : 9,600백만원 - 국 3,840백만원 - 군 5,760백만원		총사업비 : 5,200백만원 - 국 2,080백만원 - 군 3,120백만원	



《사업변경 전 위치》 : —

《사업변경 후 위치》 : —

1) 창녕문화원 : 향토문화와 지역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1995년도 설립된 단체  
2) 국립창녕박물관 유치 : 2006년 창녕문화원이 주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군민 국립창녕박물관 유치 분위기를 조성

## [2] 문제원인 분석

### ○ 공립박물관에 대한 끊임없는 언론의 지적

최근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비용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과시하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후 발생될 운영비 등의 고려 없이 우후죽순(雨後竹筍) 지어놓은 채 문만 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서 경남도내만 하더라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내 공립박물관', '경남도내 문화시설, 대부분 적자'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공립박물관 운영 부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창립박물관도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첫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연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내 공립박물관

동영사립박물관 '새금 먹는 하마' (7월3일자 1면 보도)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공립박물관 부실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본보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운영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국비를 받아 짓기는 했지만 관리도와 전문인력이 부족해마다 홍보조차 미흡해 관람객수는 줄고 열세를 수혈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도내 공립박물관에 대한 현 실태와 점검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방안이나 활성의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한다. /편집자주

### 혈세 수혈해도 소생 가능성 '제로'

<문حن는 순사>

1. 관할계 외연-매년 적자만
2. 선거운 공약의 산물
3. 지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지난해 감사원이 조사(2013년 2월20일~4월9일)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공립박물관은 3335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에서 증가추세를 뺀 수치로서 한 결과 해마다 50억원~70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정지원금은 감소해 있다. 지방재정수위약하고 관람객수가 줄면서 벌어진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본보가 공립이나 민간운영을 통해 만든 19곳(경남도내 33곳)의 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세 관광열을 기대 문화유산-박물관을 건립할 당시 사업비는 적게는 8억원, 많게는 240억원이 투입된 곳도 있고 한 해 예산 1억원에서 16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된 만큼의 효과는 따라오지 않는다. 19곳 박물관 중 6곳은 하루 평균 관람객수가 100명 이하다. 유료도 운영되는 13곳 중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도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립 당시 세대로 관광열을 탄생해 예고하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람객이 많았던 박물관이 쇠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동영사립박물관 비롯해 함안박물관(사업비 87억5000만원), 김장박물관(사업비 70억5000만원), 연암박물관(사업비 70억원), 고성박물관(4억4천), 고성박물관(29억4000만원) 등 19곳은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함안박물관은 매년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하루 평균 관람객수는 50명에 불과해 연 수입이 370만원에 불과했다. 함안박물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0명 수준인 함안박물관 매년 29억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수입은 6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공립박물관이 33곳이나 되는 고성군에는 하루 평균 관람객이 채 50명이 안되는 박물관이 2곳이나 됐다. 9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고성박물관은 매년 1억78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지만 하루 평균 관람객은 50명만, 수입은 500만에 불과했다.

<조사없이는 공익사업 애물단지-공립박물관 운영에 관공수의 투입이 커 보다는 도민이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 문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적자 많은 금액의 예산만 투입되고, 일각 도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면 문제 해결방안까지

지역	박물관	사업비	당연료	예산	수입	회계부서	관람객수
경남시	진해사립박물관	25억원	유료	1억5000만원	0	문화체육관광국	115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41억원	유료	2억4000만원	3000명	문화체육관광국	1200명
경남시	진해사립박물관	150억원	유료	2억7000만원	1800명	문화체육관광국	4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240억원	유료	1억7000만원	1300명	문화체육관광국	118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150억원	유료	2억7000만원	2415명	문화체육관광국	783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130억원	유료	2억7000만원	0	문화체육관광국	783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1150억원	유료	8000만원	26억원	문화체육관광국	1803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1150억원	유료	20000만원	7300명	문화체육관광국	372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49억원	유료	1000만원	40~5000명	문화체육관광국	5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8000만원	유료	20000만원	9600명	문화체육관광국	5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8000만원	유료	1억4000만원	0	문화체육관광국	80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7000만원	유료	1억2000만원	6800명	문화체육관광국	33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7000만원	유료	3000만원	2000명	문화체육관광국	10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13000만원	유료	1000만원	1000명	문화체육관광국	85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4000만원	유료	1000만원	1000명	문화체육관광국	10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2000만원	유료	1000만원	10000명	문화체육관광국	30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13000만원	유료	1억4000만원	50000명	문화체육관광국	15700명
경남시	창해사립박물관	2000만원	유료	1억4000만원	0	문화체육관광국	7000명

\*상환한박물관의 경우 2013년 상환계정통의약으로 계획로 2012년 기준 수입-관람객 수를 기재

19곳 중 6곳 하루 관람객 100명 이하  
매년 50억~70억 '적자' 부실 악순환  
예산 쏟아붓는 해당지자체들도 부담

사됐다. 그 중에서도 함안박물관은 매년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하루 평균 관람객수는 50명에 불과해 연 수입이 370만원에 불과했다. 함안박물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0명 수준인 함안박물관 매년 29억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수입은 6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공립박물관이 33곳이나 되는 고성군에는 하루 평균 관람객이 채 50명이 안되는 박물관이 2곳이나 됐다. 9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고성박물관은 매년 1억78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지만 하루 평균 관람객은 50명만, 수입은 500만에 불과했다.

<조사없이는 공익사업 애물단지-공립박물관 운영에 관공수의 투입이 커 보다는 도민이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 문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적자 많은 금액의 예산만 투입되고, 일각 도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면 문제

《혈세 수혈해도 소생 가능성 '제로', 2014. 7. 16. 경남일보 게재》

### ○ 적나라한 투자대비 경제적인 효과 분석

당초 계획대로 9,600백만원을 투입하여 큰 규모의 박물관을 증축했을 경우 사업비의 일부는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투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몇 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 청년 취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사회 대비 평생교육 강화, 여성 등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지원, 재해위험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물관 증축이라는 대형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군민들의 재정 지원에 대한 다양성도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의 악조건(惡條件)이 겹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방행정 분야를 두고 볼 때, 다소 소외되고 무관심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한 분야가 박물관 분야일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창녕군의 상황만은 아니고,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공립 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 ○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적

공립박물관의 관리·운영 인력<sup>3)</sup>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 10여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고 증축 후 연간 소요될 운영경비 또한 현재보다 2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창녕군의 당초 박물관 증축 중심의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추가비용 산출 대비 경제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여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고,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3) 공립박물관의 관리·운영 인력 : 학예인력, 행정인력, 시설관리 인력을 말한다.

내실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준비 확보 애로에 따른 사업지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출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예산절감방안 마련 및 실행

#### ○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

준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에서는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업 포기 보다는 창녕군에서 감당할 수 있을 규모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현재 박물관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은 물론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박물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부족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리모델링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를 5,200백만원으로 재산출하여 2015. 3. 30. 내부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 4월에는 경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하여 창녕군 재정의 열악함과 큰 규모의 부실한 운영보다는 규모면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확고한 설득으로 사전 협의를 이어갔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창녕군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메일로 피드백하는 방법으로 자료검토 및 보완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2015. 5. 26. 사업계획 변경 신청, 2015. 6. 2.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창녕군은 2015. 9월 현재 창녕박물관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 공고 중에 있다. 이번 사례 제출을 계기로 사업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첨부9.0 창녕군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창녕군**

수신 창녕도지사(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국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창녕박물관 증축) 계획변경 승인 신청

지역발전체계 시도지원신청사업인 국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창녕박물관 증축) 계획을 불입과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일 명 : 창녕박물관 증축
2. 시간기간 : 2014년 ~ 2017년 12월
3.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일 명	창녕박물관 증축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위 치	창녕군 창녕읍 순안리 46-1 2필	창녕군 창녕읍 향암리 34
건 축 규 모	부지면적: 20,000㎡ 연 면 적: 1,200㎡ 리모델링: 576㎡	부지면적: 4,881㎡ 연 면 적: 665㎡ 리모델링: 1,194㎡
	주요시설 증축 리모델링: 576㎡	증축 리모델링: 1,194㎡
사 업 비	총사업비 : 9,600백만원 - 국 3,840백만원 - 군 5,760백만원	총사업비 : 5,200백만원 - 국 2,080백만원 - 군 3,120백만원

붙임 창녕박물관 증축 지원 사업계획 변경(안) 1부, 같.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사 일명: 김주환 박물관장 직인  
함포지: 문화체육과장 직인  
시일: 문화체육과-10247 (2015. 5. 26.)  
주소: 창녕군 창녕읍 창녕로11(22리11)  
전화번호: 055-930-1504

- 첨부9.1 창녕군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경상남도**

수신 창녕군수(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국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 변경요청 검토결과 통보

1. 창녕군 문화체육과 - 10247호(2015.5.26) 및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 1228호(2015.6.1)와 관련됩니다.

2. 국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문제부 검토 결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검토결과
사 일 명	창녕박물관 증축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 인
위 치	창녕군 창녕읍 순안리 46-1 2필	창녕군 창녕읍 향암리 34	
시일기간	2014. 1월 ~ 2017. 12월	최종	○ 인
건축규모	부지면적: 20,000㎡ 연 면 적: 1,200㎡ 리모델링: 576㎡	부지면적: 4,881㎡ 연 면 적: 665㎡ 리모델링: 1,194㎡	
주요시설	증축 리모델링: 576㎡	증축 리모델링: 1,194㎡	○ 인
사 업 비	총사업비 : 9,600백만원 - 국 3,840백만원 - 군 5,760백만원	총사업비 : 5,200백만원 - 국 2,080백만원 - 군 3,120백만원	

붙. 1

**경상남도**

주무관 직인  
함포지: 문화체육과장 직인  
시일: 2015. 6. 2.  
주소: 문화체육과-11841 (2015. 6. 2.)  
전화번호: 055-211-4726

《사업계획 변경 신청, 2015. 5. 26.》

《사업변경 승인, 2015. 6. 2.》

### [4] 예산절감 장애 극복

#### ○ 처음부터 새로 시작

중앙부처에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확보, 각종 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 작성 등을 점검·확인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국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4)를 거쳐서 사업을 요구하도록 한다. 평가내용에는 입지조건에서부터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받고 미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4)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건립운영계획,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검토

있다. 창녕군에서 박물관 증축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애초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 것이었다.

5,200백만원의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후 창녕군에서는 먼저 신속하게 경남도에 이 사실을 알렸고,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와 접촉하여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논의하면서 진행과정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창녕군의 방침 결정 후 2개월 남짓만에 리모델링 중심의 변경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변경안에는 사업개요, 사업변경 내용, 사업변경 사유 및 세부내역, 사업 변경 타당성을 비롯한 운영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 변경 계획안에 감동을 담아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설득력 있는 사유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아내야만 했다. 창녕군은 사업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립박물관 부실 운영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건축규모를 축소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정부시책인 공립박물관 무료관람 확대와 ‘문화가 있는 날’<sup>5)</sup> 의무적 참여를 위하여 2014. 9. 12.부터 무료화를 시행하여 변화된 관람 욕구와 지역문화 저변확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과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 [5] 예산절감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 사업변경으로 4,400백만원 세출예산 절감

창녕군이 박물관 증축 사업의 변경 없이 그냥 두고 있었다면 과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 창녕박물관 증축 계획은 별도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박물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세출예산을 절감**한 부분에서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 지역민의 관람욕구에 부응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창녕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개략적인 증축(665㎡) 공간에는 현재 미비된 기획전시실(다목적 겸)과 어린이전시실, 전망대로 구성될 계획이고, 기존 박물관 리모델링(1,194㎡)은 상설전시실과 수장고 등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폐쇄적인 수장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보이는 수장고’ 설치로 유물이 어떻게 관리·보관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는 체험공간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획전시실은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춘 어린이박물관은 관·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로 정부 3.0 핵심 과제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5) 문화가 있는 날 : 2014년 1월부터 문화옹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날